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

과감한 위치 이동이 필요하다

송 오 섭

서울대 법학과 4년, 총학생회 정책실장



“고장난 레코드판을 돌리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서울대에서는 학생운동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두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후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학생운동에 관해,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하였고 여전히 사회운동을 하면서 후배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배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장이었다. 그 자리에서 인상깊은 대화 하나가 선배와 후배 사이에 오고갔다. '84년 미문화원 점거투쟁을 주도했고 지금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함운경 선배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어제 이화여대에서 열린 학생운동 대토론회에서 선배님은 ‘현재 학생운동은 고장난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보수언론들은 다른 내용은 다 빼고 그 말을 기사제목으로 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렇듯 보수언론에 의해 이용 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함운경 선배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 말에 학생운동을 하는 후배들이 충격을 받았다면 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보수언론에 의해 이용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태연하게 답변하는 선배를 보며, 또 그 답변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뜻하는 청중들을 보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

지할 수 있었다. '90년대 들어와 학생운동 혁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으나 언제나 대사회적으로는 단결된 모습이 중요했고, 그래서 한총련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는 천지 차이였던 것이다. '학생운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절박감이 토론자와 청중들에게 공유되어 있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

현재 학생운동은 대사회적, 대학내적으로 극도의 고립을 겪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연대 사태와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발생한 故 이석 씨 치사사건이다. 도덕성과 양심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학생운동이 방 어폭력 이상의 과도한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립의 원인이 여기에만 있지 않기에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다. '89년 부산 동의대 프락치 치사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전대협은 '비폭력' 선언을 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시 구국의 강철대오로 굳건하게 재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지금 한총련이 밟는다고 가정해보자.

한총련이 비폭력 선언을 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진다고 해서 한국 학생운동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이 고개를 흔들 것이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정세에서 도출되는 일시적 위축이 아니라는 것, 현상(작년 연대 사태와 올해 한총련 출범식 사태)의 저변에 뿌리깊은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철학적·구조적 관점

부재, 그로부터 도출되는 혁신의 노력 부재'이다. '90년대 들어와 학생운동은 계속적인 이데올로기적 고립을 겪고 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의 가장 큰 지지기반인 대학생들로부터도 괴리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사상, 조직, 활동방식을 일구어내지 못한 학생운동의 관성이 만들어낸 작품(?)이고, 지난 연대 사태와 한총련 출범식은 이 작품을 국민들 앞에 전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위치를 다시 정하자

앞에서 지적했듯 현재 학생운동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사상, 조직, 활동방식을 일구어내지 못한 학생운동의 관성'이다. 따라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성을 깨고 철학적·구조적 혁신을 감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학생운동의 위상(position) 재설정'이다. 맑스주의를 흔히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이는 맑스가 자본주의 연구를 통해, '왜 노동자계급이 역사·사회 변혁의 주인이 되는가', 즉 노동자계급의 물질적·주체적 조건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맑스는 평생 이 연구를 하였고, 20세기를 거치면서 그의 이론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무기가 되어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집단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position)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집단이 고민해야 할 올바른 사상, 조직, 활동방식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학생

운동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언제나 학생운동은 ‘객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기위치와 역할 설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력을 유지해왔다. 아래에서는 “80년대 학생운동사”, ‘현 시기 학생운동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술해가면서 ‘90년대 학생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주장’을 도출하고자 한다.

’80년대 초~중반 : 무림 VS 학림

무림-학림 논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주화-주전 논쟁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운동권은 ‘서울의 봄’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 무엇보다도 학생회 구성, 학칙 개정 등 학원민주화 투쟁을 통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경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소위 주전파라는 입장은 학원민주화 투쟁을 사회민주화 투쟁으로, 학내 투쟁을 가두 투쟁으로 변화시킬 것을 강조한 입장이다. 주화파는 대중적 기반 확보를 위한 학원민주화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쟁의 방법면에서도 학내 투쟁, 평화적 투쟁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다. 이들 두 가지는 ’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의 30여만 명의 시위와 회군결정 이후 5월투쟁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논쟁을 흔히 무림-학림 논쟁이라고 부른다.

무림진영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주도체론’/‘시위투쟁자제론’/‘준비론’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그들은 민중운동 세력의 조직화된 역량 성숙에 역점을 둔다.

즉, 현재 학생운동을 제외한 여타 민중운동의 역량이 거의 전무하니 학생운동이 주도체로서 전체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면서, 따라서 그나마 남아있는 학생운동의 역량조차 파괴시킬지도 모를 시위를 자제하고 학생세력의 민중운동으로의 집단적·체계적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학림진영은 5월의 좌절이 전위조직의 결여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 조직운동을 시도한다. 즉,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주운동의 전국적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운동은 간단없는 투쟁을 벌여 여타 민중운동을 활성화하는 보조집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무림-학림논쟁은 『야학비판』과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팜플렛 논쟁, 즉 이른바 야비-전망 논쟁으로 이어진다.

야비 VS 전망

야비는 “학생운동이란 결국 학생이라는 존재의 공통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들의 자주적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학생운동의 진보적 진영이 급진적·이념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 행위를 해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현 상황이 그 운동적 성격을 변질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야비는 진보적 학생운동이 아닌 일반적 의미에서의 학생운동은 ① 학내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 ② 사상과 연구의 자유, ③ 학교당국에 대한 경제적 제 요구 등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진보적 학생진영이 “전위의 형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선진

층은 전위형성이라는 관점에 서되, 당면 학생운동의 강조점은 선진 학생층의 정치투쟁이 아니라 중·후진 학생층의 일상투쟁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운동이 민중운동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길은 민중운동으로의 존재 이전이므로 학생운동은 일반 학생대중의 수준에 맞는 투쟁에 몰두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망은 “학생운동은 민중운동의 선도체로서 정치투쟁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비가 “학생운동가의 배출이라는 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대신, 그 고유의 정치투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야비가 중·후진 학생층은 오로지 존재에 기반한 협애한 일상투쟁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전망은 정치투쟁 일변도로 인해 학생대중과 유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생운동 현실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라고 단언하고, 역사적으로 주요한 시기마다 광범위한 학생대중들이 정치투쟁에 나섰으며, 일상적 시기에도 학생대중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리의 사후복수

'90년대 들어 학생운동 진영에 전문운동, 진보적 전문인 같은 언술이 등장했는데 일부 PD 학생운동 계열의 경우, 그것을 실천적으로 패배한 무림의 논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비>가 “학생운동가의 배출이라는 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대신 그 고유의 정치투쟁을 외면”했던 것처럼, 학운 단위의 독자적인 실천의 문제는 접어둔 채 부문운동을 학생운동의 최상

위 심급으로 놓고, 또한 <야비>의 “중진·후진 학생층은 오로지 존재에 기반한, 학생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협애한 일상투쟁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던 일상투쟁 강조론은 ‘중층화, 대중화’라는 문제설정 속에 ‘생활진보’라는 언명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의 선도성 복원>—<대중운동의 좌익화>가 학생운동의 위상에 맞는 역할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들은 학생집단이 정치 의식화되는 경로는 무엇보다도 ‘학생’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이념성과 근본지향성, 실천적 급진성에 있고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여타 소부르주아 집단과는 다르게 피지배계급의 입장에 서게 하는 근본 동력이라고 파악한다.

전문운동, 부문운동, 진보적 전문인과 같은 언술들은 '80년대에 실천적으로 패배한 무림의 논지를 계승하는 것으로 학생운동의 강점을 구부리는 잘못된 치유방안이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더 나아가 문화정치, 일상성, 생활세계라는 담론이 가지는 허구성에까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의견도 있다. 대학생으로서의 자신들의 일상들에서 ‘정치’의 접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그들은 대학인으로서의 ‘쁘띠 부르주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한마디로 말해 '90년대의 새로운 사회과학적 조류들(탈근대)에 의지한 자기 욕망의 긍정이라는 것이다.

생명력 있는 학생운동을 위하여 : 학생운동의 위치와 역할 재설정

급진성·선도성의 재구성

남한 학생운동이 민주화의 역사에 굶은 획을 그으면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운동 특유의 급진성과 선도성 때문이다. '80년대 학림의 문제의식이 실천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학생의 '정열', '순수', '정의감' 등 청년세대로서의 특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의 문화라는 것은 사회의 조건과 학생운동이라는 것을 통해 고유한 현상으로 자리잡아 있다. 연대 사태 이후에도 심지어 보수언론조차도 학생운동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 '학생운동이 필요없다거나 공부만 하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국민들도, 대학생들도 학생운동이 젊은 세대의 비판성을 유지해줄기를 바라는 것은 청년문화의 토착화와 고유화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생운동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선도성과 급진성은 폐기되거나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생운동의 성격을 '대사회적 문제 제기 집단'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이 선도성·급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학생운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대중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의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에 반독재 민주화라는 의제라든가,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시민사회를 협애화시키는 데 가장 주요한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했던 분단/반공에 대항하는 통일이라는 영역 설정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언제나 학생운동이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지표가 되어왔다. '80년대 반독재 민주화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통일이라는 것

은 전근대적인 문제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90년대 한국사회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90년대 한국사회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시대라고 분석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사회에는 전근대/근대의 문제(노동, 통일)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군들(환경, 성 등의 탈근대적인 문제)이 출현하고 있으며, 학생운동은 구래의 의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운동 영역의 확장을 통해 신주제들을 선택하고 앞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주제, 소위 거대담론이라 불리는 노동, 통일을 방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주제들은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제적 삶과 연관되어 있는 구체적 의제에 착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새로운 개념으로의 재구성을 통한 '경제민주주의-반재벌운동'을 편다든가, 통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일상화·지역화 등을 이야기한다). 이것과 더불어 학생운동의 급진적 실천방식으로서 우리는 직접행동을 이야기한다. 거리정치라는 한정된 활동방식을 넘어 '90년대 학생운동은 모순이 터지는 현장에서 특유의 비타협적 활동을 통해 선도적 실천을 행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학생운동의 <선도성·급진성의 재구성>은 이제 '영역의 확장'과 '활동방식의 변화'를 통해 구체성, 현장성, 비타협성이라는 세 가지 테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성이라 함은 운동 영역의 확장과 거대담론의 재구성 속에서 정세에 의해 도출되는 구체적 의제(사안)에 착목하는 것이며, 현장성과 비타협성이라 함은

청년세대 고유의 급진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보적 참여역량 배출

학생운동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로서 동시대의 이념과 가치를 선도하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학내 여론 선도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문화적·이념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90년대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긴 것도 기실 '80년대 학번들의 사회진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림이전 학림이전 이런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림적인 전통에서는 이것을 부차적인 역할로 상정한다. 그들은 “학생운동의 고유 역할인 정치적 선도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역량 배출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상위의 목표로 두는 것은 학생운동의 생명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90년대 학생운동에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화두이다.

이제 학생운동은 장기적 변혁 전망 아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정치적 선도투쟁의 결과가 아닌 '체계적·집중적 투자로서의 진보적 참여역량 배출'이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80년대의 상황에서 학림적인 문제의식이 타당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90년대적 상황에서 그것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위치 설정에서는 객관적으로 자기가 처한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박한 시민사회, 민중운동의 부재시대에 학생운동으로 과잉집중되었던 선도적 집단 역할은 이제 분산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분산되고 있다. 이는 학생운동에서 기회

일 수 있다. 과부하에 걸린 학생운동이 몇 가지 과제들을 덜고 그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즉 학생사회 대중운동의 강화를 통한 '진보적 참여역량 배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역할을 선도성과 급진성이라는 당위 아래 강변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대협 세대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시대의 이념과 가치를 선도하고, '운동과 대학인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행동양식은 필수적이다. '80년대 초반 선배들은 노동운동, 재야의 현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장기적 행동양식으로 도출했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전대협 세대는 그것에 대항할 만한 그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대협 세대는 장기적 행동양식을 구성해내지 못했다. 소수 선진 인사들에 의해 '80년대 초반의 '노동현장으로의 진출'이라는 행동양식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거대담론과 학우들 일상과의 괴리, 노동현장 자체의 역량 성숙으로 인한 학출진출 요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에 전대협 중반부에 '애국적 사회진출'이라는 대안적 행동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학우들과의 괴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중운동 프로젝트로 제시된 애국적 사회진출은 단기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으나 결국 파산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어떠한 새로운 가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즉 청년세대의 감수성 정도에 호소하는 정도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과 연결된 새로운 행동양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폄하하면 '그냥 사회진출 해서 열심히 싸우자' 정도였다. 그후 '90년대 초반

등장한 것이 '부문운동, 전문운동'이다. 학우들의 일상과 심각한 괴리를 경험하던 시기에 쉽게 말해 '자신의 전공, 전망, 직업과 운동을 일치시키자'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에 맞추어 제기되었던 것이 사범대 교육운동, 과학기술운동, 법률운동 등이다. 이때 한참 단대운동의 정형을 찾자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러한 대중운동 프로젝트는 학우들이 답답해하고 있던 부분을 상당히 긁어주어 한동안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학우들의 전공과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 직업·진출을 통해 운동을 풀만큼의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의 담론적 풍미를 거쳐 어떠한 대안적 행동양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그러들었다. 이러한 전대협 세대의 장기적 행동양식 부재는 결국 '모래시계 세대의 일상으로의 침잠', '30대 대세론의 붕괴'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11 총선 당시의 30대 담론이 아무런 사회적 파급효과도 남기지 못한 것이나, 최근의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모습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위의 세 가지(노동 현장으로의 진출, 애국적 사회진출과 전문운동)를 평가해보면 학생운동이 장기적 행동양식을 구성함에 있어 고려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상과의 밀착과 그에 맞는 공간 창출이다. '대학인과 운동의 괴리'를 풀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과 밀착될 수 있는 운동적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를 살아가는 일 주체—우리—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권력에 순응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재생산한다. 다양한 생활영역들에서 가치판단과 행위의 주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의 역할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제별 실천(환경, 여성, 정보 등)을 통한 삶의 재조직화' 프로그램을 사회운동과의 연계 아래 대학인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사회의 요구 지점에 대한 성찰이다. 사회로의 진출을 예비하는 것을 특유의 정체성으로 가지는 학생운동에게 이것은 주요 고려 지점이 되어야 한다. '80년대 대학인의 노동 현장으로의 진출이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민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90년대 중반 한국사회는 제반 영역에서의 인권 확장이라는 요구 속에 다양한 사회운동이 분출하고 있고, 이들은 적극적 사회 참여자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단은 학생운동뿐일 것이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나아가 사회 진출 후에도’ : 주제 실천형 운동

위의 두 가지 역할(급진성·선도성의 재구성과 진보적 참여 역량 배출)을 전제로 해 도출되는 새로운 학생운동론—단기적·장기적 행동양식—이 바로 주제 실천형 운동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나아가 사회진출 후에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별 실천의 과제를 대학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환경운동, 여성운동, 정보운동 등이 이러한 것이다). 주제 실천형 운동이라는 것이 학림과 무림의 적당한 절충으로 비칠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협의가 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언제나 학생운동에는 충용의 미덕이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

제나 단기적 역할은 장기적 비전이 존재하는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 비전은 단기적 실천들을 통해 내용이 수정되고 보충되는 것이다. 양자가 긴장관계를 유

지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 시기 학생운동의 몫이다. ■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9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
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
정·보완할 수 있습니다.